

“조규성! 조규성!...포기하지 않은 선배 자랑스럽다”

‘가나전 멀티골’ 광주대 출신 조규성 후배들 응원 열기

이승원 축구부 감독 “배짱 좋고 성실한 제자 목표 이뤄 기뻐” 3학년 때 프로 입단 후에도 장학금 기부 등 모교 사랑 실천 국내외 ‘조규성 열풍’ SNS 팔로워 2만→130만으로 ‘경중’

“조규성, 왔다! 왔다! 조규성 선배님 화이팅!”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가나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예선 경기가 열린 지난 28일, 광주 시민들은 하나같이 조규성의 발 끝에 시선을 고정했다.

광주대학교 출신으로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풀타임 출전하는 조규성의 활약을 보기 위해서다. 기대에 부응하듯 멀티골을 뽑아내며 위용을 드러낸 조규성은 광주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했다.

이날 조규성의 모교인 광주대에서는 누구보다 뜨거운 응원 목소리가 쏟아졌다. 광주대 축구부 숙소에서는 광주대 축구부 부원 42명 전원이 모여 단체 응원전을 펼쳤다.

광주대 축구부는 월드컵 등 중요한 축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한 데 모여 응원전 내지 전략 분석을

하곤 했다. 다만 이날은 광주대 축구부 선배인 조규성이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풀타임 출전한 만큼 더욱 뜨거운 응원이 펼쳐졌다.

현장에서는 함성 소리가 끊길 틈이 없었다. 전반전 가나에 0-2로 밀리는 중에도 “할 수 있다”고 외치며 마음을 졸였고, 후반전 조규성이 헤더로 멀티골을 터뜨려 2-2 동점을 만들자 “역시 선배님” 함성을 지르며 열싸우고 감동을 나눴다.

광주대 축구부 주장인 박지우(23)씨는 “선배가 두 골을 연속으로 넣었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이번 경기 무조건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흥분하면서 지켜봤다”며 “비록 마지막에 실점해 패배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격하는 조규성 선배와 국가대표의 모습을 보고 큰 에너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씨는 “훈련을 할 때마다 조규성 선배의 이름이

빠짐없이 나온다. 함께 그라운드를 누빈 적은 없지만, 조규성 선배가 누구보다 ‘성실한 선수’였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다”며 “보통 오후 3시 30분에 운동을 시작하는데, 선배는 2시께부터 나와 스트레칭과 웨이트를 하며 몸을 풀고 있었다. 1학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그랬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원인 임희성(20)씨도 “조규성 선배가 볼을 잡을 때마다 기대감이 솟았다. 역전승이 코 앞에 온 것만 같았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임씨는 “광주대 선배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됐다. 선배는 우리들의 귀감이다”고 말했다.

이승원 광주대 축구부 감독은 “조규성은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는 목표 의식이 남들보다 뚜렷했다. 배짱도 좋고, 어쩌나 성실한지 감독이 직접 ‘운동을 쉬라’고 할 정도였다”며 “자기 목표를 잘 이뤄낸 조규성을 보니 기쁘기도 하고 자랑스럽다”고 웃었다.

조규성은 경기도 안산시 출신으로 지난 2016년 광주대 스포츠과학부에 진학했다. 2019년 1월 광주대 3학년을 마친 조규성은 FC안양으로부터 우선지명권을 받아 곧바로 프로 리그에 입단했다. 이때 프로리그 진출을 기념해 광주대에 발전기금 500만 원을 쾌척하면서 모교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후 조규성은 2021 시즌 K리그2에서 8골을 넣



광주대학교 축구부가 지난 28일 광주대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가나전을 응원하던 중 조규성이 득점하자 환호하고 있다.

고, 올해는 K리그1에서 17골을 쏟아내며 올해 K리그 득점왕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활약했다.

조규성의 인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조규성 ‘열풍’이 불고

있다. 월드컵 출전 이전 조규성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2만여명 남짓이었으나, 29일 현재 130만명까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단비 뒤 한파 경고

광주·전남 이틀간 100mm... 오늘 눈

유례없는 가뭄속 광주·전남지역에 이틀간 100mm가 넘는 단비가 내렸다.

단비가 그친 뒤 한파와 함께 올 겨울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아침 광주·전남지역의 최저기온은 올해 들어 첫 영하권을 기록하고 첫눈까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린 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29일 밤 9시를 기해 전남 20개 시군에 한파경보를 발효했다.

목포와 신안, 흑산도, 홍도에는 한파주의보를 발령했다. 한파특보 발령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15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30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1도, 전남지역 역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2도, 낮 최고기온 1-5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와 전남 서해안에는 30일부터 이틀간 1-3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으며 전남 동부권에는 5mm 내외의 눈·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광주·전남에 100mm안팎에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누적 강수량은 광양 백운산 142.5mm, 여수 공항 70mm, 보성군 66.2mm, 광주 조선대 17.5mm 등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공공 싸매고 광주·전남지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푹 떨어진 29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옷을 두툼히 입은 채 등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원광대병원·성가톨릭로병원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1등급

광주·전남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할 수 있는 병원 4곳이 모두 적정성 평가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8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전국 88개 병원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벌였다.

광주·전남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은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원광대병원·성가톨릭로병원 4곳이며, 이들 모두 1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전국 88개 병원 중 77곳이 1등급으로 선정됐으며 9곳은 2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개 병원은 수술 사례가 부족해 등급에서 제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

“미쓰비시 판결 즉각 이행...굴욕외교 중단하라”

시민단체 기자회견

광주 시민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미쓰비시 특별헌금회명령 판결 이행과 정부의 굴욕외교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함께 28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후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특별헌금회명령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도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4년 전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 할머니 등에 대해 미쓰비

시중공업이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음에도 범법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체는 “몇 년째 시간 끌기가 계속돼 원고 5명 중 3명(김중근, 이동린, 박해옥)이 고인이 되고 남은 원고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일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단체는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별 분쟁을 판단해 주는 곳이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격정하는 곳이 아니다”면서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하라”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11월 선착순 30분에 한하여 이장비 지원해드립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수목장*자연장 전문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062) 464 - 9190